

외식 한번에 10만원 '흠뻑'...가정의 달, 지갑 열기 무섭다

외식물가 고공행진...광주 돼지갈비 전문점 1인분에 1만9000원 삼겹살·짜장면 등 대표 외식 품목 1년 전보다 최대 12.67% 올라

“밥 한 끼에 10만 원을 흠뻑 넘어서니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가 겁이 나네요.” 직장인 김모(36)씨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지만 근심이 가득하다. 올해는 ‘황금연휴’까지 든 휴일이 많은 달이지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연휴 때 나갈 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장 김씨는 어린이날 4인 가족 식사장으로 광주의 유명 돼지갈비 전문점을 예약했는데 예상 지출액이 13만원에 달한다.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 전문점을 선택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게 김씨의 하소연이다.

해당 식당 ‘생돼지갈비’ 1인분 가격은 1만9000원으로 5인분을 먹고, 후식 냉면 5000원짜리 4그릇을 주문하면 11만 500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음료수와 디저트로 커피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등을 더하면 13만 원을 쓴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어린이날이니 외식비 외에도 아이들 선물 구입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크다. 게다가 곧 어버이날도 있어 양가 부모님을 각각 모시고 외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외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날이 가득한 5월이지만 서민

들 사이에서 설렘보다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외식 대표 메뉴 가격이 1년 전 보다 많게는 10% 이상 오른데 이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에 달해 외식하기 겁이 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삼겹살과 김치찌개, 짜장면 등 대표 외식 메뉴의 광주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2.67%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평균 8000원으로 1년 전(7100원)보다 12.67% 올랐다.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의 경우 1만4844원으로 지난해 1만3600원보다 9.14%(1244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탕은 1만5800원으로 1년 전 보다 6.76%(1000원) 올랐고, 냉면 한 그릇은 9300원으로 8.1%, 짜장면 한 그릇은 6300원으로 6.78% 상승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담되는 외식 물가지만 최근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마저 상승하고 있어 외식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삼겹

살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kg당 평균 2만 4750원으로 한달 전 2만2560원보다 9.7% 올랐고, 닭고기는 kg당 6246원으로 2.9% 올랐다.

닭고기의 경우 최근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고자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인 만큼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당분간 닭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킨과 피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최근 잇따른 가격 인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간장 오리지날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이 됐고,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이 됐다.

3000~5000원 가량인 배달료를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일부 메뉴의 가격을 평균 5.4% 올렸고, 노브랜드 버거와 롯데리아도 평균 4.8%, 5.1% 인상했다.

버거킹은 지난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와 사이드메뉴 가격을 지난 2월 20일부터 올렸고, 도미노피자도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산불피해 축산농가 복구 지원

축산기자재 등 1000만원

전남 농협본부(본부장 박종택)와 합평축협은 지난달 28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희망과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지난 4월 3일 발생한 함평지역 산불은 축구장 687개에 달하는 475ha의 산림 면적을 태워 역대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중 최대 규모의 산림피해가 됐다. 이 산불로 인해 인근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었다.

이날 행사는 연기를 흡입한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축산농가에 보조사료 등의 축산기자재를 지원했으며,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소방대원들에게 합평축협에서 생산한 한우곰탕을 전달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주민과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광주 서구 등 6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기치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서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주시 서구와, 강원 속초시, 경남 거제시, 제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 등이다.

이들 예비상권은 로컬크리에이터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상인, 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 새 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직접 수행한다. 이들 지역에는 1년간 2억원이 지원된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 기획과제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대상이 돼 5년간 최대 1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트코인 가격 4개월 연속 상승...3만 달러 근접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0만 달러(1억3410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말 대비 4.77% 오른 2만9240.43달러에 지난달 거래를 마쳤다.

한때 6만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의 붕괴 및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몰락 여파로 지난해 급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1만6556.9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월간 기준 1월(+37.87%),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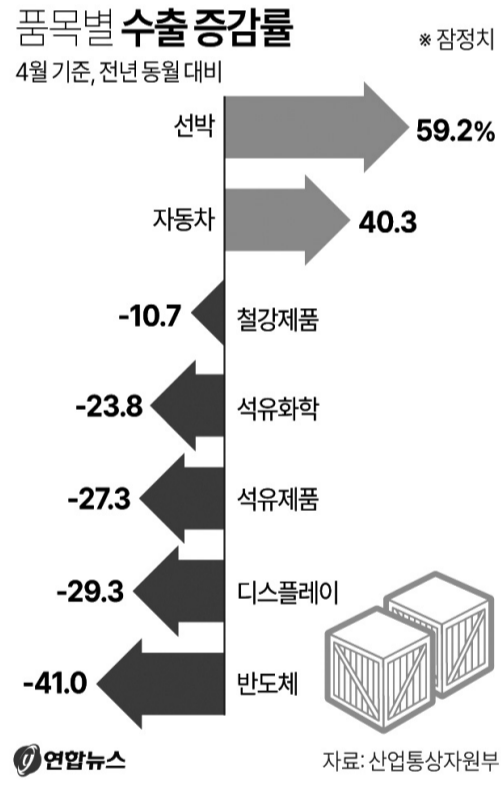
(+2.35%), 3월(+19.45%)에 이어 4월까지 상승하며 3만 달러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1.53 (+5.72)
↓ 코스닥	842.83 (-7.38)
↑ 금리(국고채 3년)	3.293 (+0.005)
↓ 환율(USD)	1337.70 (-0.30)

‘41% 급감’ 반도체 부진...수출 7개월·무역적자 14개월 ‘마이너스’

4월 수출액 14.2% 감소

IT·석유·철강 동반 약세



한국 수출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의 경기 부진 장기화에 7개월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된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도 7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지난 1월 125억2000만달러까지 커졌던 무역적자 규모는 올해 들어 꾸준히 축소되다가 4월에는 한화로 3조원대인 26억달러 수준까지 좁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4월 수출은 전월(551억달러)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1월 464억 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데 이어 2월(501억달러), 3월(551억달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요·가격의 동반 하락 속에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을 낳는 큰 흐름이 이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0% 감소했다. 반도체 한 품목에서만 수출이 44억달러 줄어들었는데, 4월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액인 83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4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월(-34.5%)보다 악화했다. 작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9개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40.3%), 선박(59.2%)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41.0%), 디스플레이(-29.3%) 등 정보기술(IT) 품목,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두루 감소했다.

작년 4월 수출(578억달러)이 역대 4월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한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대변화 속에서 주요 수출국의 수출 부진은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측면도 있다.

4월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3.3%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25.8%) 수입액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다만 반도체 장비와 수산화리튬 등 전자전자 소재 수입은 증가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백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